

서호인의 '소설처럼'



독자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자아의 향방을 찾아 서성대는 사람도 있고 존재의 시원을 궁금해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테지만, 그것보다는 역시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후자라고 하여 전자보다 진지한 고민이 덜하다 할 수는 없다. 출근과 퇴근 사이에 이뤄지는 생각과 사유는 어쩌면 보다 본질적이다. 업무 메일의 문장을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밥을 얻어먹었으면 커피 정도는 사야 할는지, 사내에 청첩장을 어디에까지 돌려야 할지, 내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지, 더 나은 부서로 이동은 가능한 것인지, 언제까지 출근과 퇴근을 할 수 있을지 등등. 이런 것들은 자아가 아닌가? 이런 질문은 존재에 닿을 수 없는 것들인가?

신예 작가 장류진의 첫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은 그런 질문에 곱들여 답할 필요가 없다는 듯 빠르고 과감하되, 디테일하고 다정하다. 표제작인 '일의 기쁨과 슬픔'은 그가 등단한 매체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전에 없는 화제를 일으켰다. 판교테크노밸리 직장인의 일상을 다룬 이 소설은 그간 한국 소설이 놓치거나

몰랐던 직업군을 소설의 전면에 등장시켜 새로운 노동자의 전형을 만들어 낸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따라 하고 싶은 스타트업 기업의 의지는 한국 특유의 문화와 업계의 관행과 만나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된다. 글로벌 아티스트를 먼저 알아보고 초청하는 재벌 후계자는 자신의 자아를 인스타그램에 의탁하고, 그 흔들림에 따라 직원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세련된 부조리 안에서 개인은 존재하는 것이다. 등 뒤에서 한숨을 흘리는 사회성 없는 동료와 함께, 눈치라고는 밥 말아먹은 열 부서 풍기와 함께.

장류진의 소설은 2019년 대한민국 30대의 삶을 더하고 뿔 것 없이 늘어놓아 되레 유머러스해진 블랙코미디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부터 시작해 담배 딱 맞출까지 이어지는 결혼 준비의 미친 듯한 꼼꼼함이 대표적이네. 소설의 인물들은 작가가 절대로 그쳐 지나치지 않는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고는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긴 고민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다. 다

만 그 위치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는 한국 사람 거의 모두에게는 이미 익숙한 스타일이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한국 소설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움이다. 주인공의 지적인 속말이나 상황의 아름다운 묘사가 아닌, 인물들이 부딪치는 작은 현실들의 조합으로 장류진의 이야기는 나아간다. 그럼으로 하여 얻어 내는 장류진의 한국 독자의 울림은 '기쁨과 슬픔'이 되는 까닭이다.

훌륭한 리얼리즘 소설이 그렇듯이 '일의 기쁨과 슬픔'도 현실 고발의 기능에 성공한다. 같은 시험으로 입사한 남자 동료와 사내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러 지냈을 때, 비로소 알게 된 서로의 연봉이 앞자리 숫자가 다른 이유는 성별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잘 살겠습니다') 결혼 경험에 있는 옛 직장동료를 만나러 일본에까지 가면서 언제까지나 본인 위주로 관계를 설정하고 기대치를 점차 왔던 남성의 허위를 폭로한다.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성매매는

일상의 공간마저도 뒤흔들고, 여성의 주거는 더욱 곤궁해진다. ('새벽의 방문자들') 요컨대 '일의 기쁨과 슬픔'은 디테일하고 다정한 리얼리즘 소설이자, 여성 혐오와 젠더 불평등을 자연스레 폭로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수록작 중 가장 짧은 소설인 '백한 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은 폭로가 아닌 위로에 가깝다.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말까 고민하는 주인공의 상황은 이렇다. 연봉 2663만 원. 세후 월 210만 원. 월세 50, 관리비 7, 공과금 10, 인터넷 1, 핸드폰 요금과 할부금 7, 적금 55, 실비보험 12, 블라우스와 구두, 차마, 바지 17, 마트 17, 이하 생략.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만한 생활 혹은 그 앞이나 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인가? 또한 늦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야근 때문에 야우성인가? 장류진은 그들을 소설로 썼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지만, 장류진은 더 나아가간다. 이나아가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첫 발걸음의 눈부심이 이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중이다.

의료칼럼

노인의 구강 건조증



안종모 조선대 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경우와 타액선 실질의 파괴 등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구강 건조증의 주요 원인으로선 전신 질환, 약물 부작용, 방사선 조사 등이 있다.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당뇨병, 위축성 위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철결핍성 빈혈, 간 질환 및 신장 질환 등 무수히 많다. 약물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구강 건조증은 항콜린 작용제, 항히스타민제, 항고혈압제 등이 가장 대표적이며 진정제, 항우울제, 암페타민 등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국내의 경우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이니, 약물 부작용이 국내 노인 구강 건조증 발병의 가장 빈번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70-80세 이상 고령의 노인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구강 건조증을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항고혈압제나 항우울제 등은 장기적인 복용이 필요하고, 임의로 중단 시 혈압, 탈수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약물에 대한 조절은 환자의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두경부암으로 인하여 방사선 조사를 한 경우에도 몇 주 이내로 타액선 영향으로 인한 타액 분비가 현저히 감소되고 연하 곤란 등이 나타나게 된다.

지속되는 구강 건조증은 미각 기능 감소, 저작 및 연하 장애 등 다양한 구강 질환을 일으킨다. 구강 건조증 환자들은 내원 시에 '입안이 마르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구강 건조감을 호소할 수 있으나 '음식물을 삼킬 수 없다', '말을 하기 어렵다', '의치가 잘 맞지 않는다' 등의 이차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타액양은 적고 거품이 많은 편이며, 타액 양의 감소로 인하여 충치 및 치주염이 잘 이환이 되고, 타액의 윤활 기능 저하에 따른 구강 내 궤양이 호발하고 틀니 아래 조직에 염증, 구강 칸디다증과 같은 곰팡이 감염, 구강 작열감 증후군, 구취 등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구강 건조증의 치료는 필수적이며, 주로 대증적

이며 예방적인 치료를 실시한다. 보조 방법으로 수분 섭취, 가습기 활용, 금주 및 금연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인체의 타액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수시로 구강을 적셔서 구강 건조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타액선의 실질적 기능이 저하된 무반응자의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제제이다. 일반적으로 제로 바와 같은 분사제, 드라이문트와 같은 젤 형태의 인공 타액이 사용된다. 염산필로카르핀과 같은 타액선 분비 자극 약물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자극성 타액 분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반응자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구강 건조증은 분명한 원인 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원인 요소의 해결에 따라 처치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구강 건조증의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며, 타액 분비를 일시적으로 촉진시키거나 인공 타액을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구강 건조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구강 내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나타나므로 주기적인 진료와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

기고

어떤 태도



임수진 동신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에서 시작하여 '1999년 런던'의 후반부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만나 한 줄기로 이어진다.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35년 더운 여름날, 열세 살의 소녀 브리오니 탈리스는 언니 세실리아와 탈리스가 (家)의 오랜 가정부의 아들인 로비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다. 상상력이 풍부한 데다 선부르고, 아직 어른의 사랑을 이해 못 하는 브리오니는 그 상황을 오해하고, 때마침 발생한 친척의 강간 사건의 범인이 로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브리오니의 무모함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세실리아와 로비, 그리고 브리오니의 삶은 제2차 세계대전의 혼돈과 맞물려 비극을 향해 달려간다.

왜 브리오니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 아마도 현상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던 기대와 동기, 현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사건을 해석한 데 기인할 것이다. 거기에는 감정과 그렇게 믿고 싶은 편협한 마음이 있을 뿐,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었다. 이는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 브리오니가 그랬듯, 우리는 자신의 인식(혹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근거를 둔 판단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에 의해 재구성된 것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이름을 걸고 주어진 사실이 때로 거짓이거나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음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우리는 일상적 관심사에 따라 관련된 대상에만 시선을 둔다. 따라서 보려고 하는 개별 대상에만 시선을 쏟은 나머지 배경을 이루는 전체로서의 세계를 도외시하게 된다. 이를 두고 철학자 후설은 이 세계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의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습관적 믿음에 기대어 최근의 여러 사건과 현상을 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 브리오니는 진짜 '진실'에서 눈을 돌린 채 무지와 허위, 고집으로 가득한 선택을 한 자신의 판단이 되돌릴 수 없는 죄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일그러져 버린 세계에 속죄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까?

여기에 멈춰 서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데에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판단 중지

(epoche: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후설 현상학의 주요 개념)'이다. 주어진 정보 혹은 사실을 기초로 어떤 사안에 대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판단의 주체인 자신이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의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결정이고, 실행인가?'라는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내가 '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상을 향하던 시선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의식을 되돌아보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 혹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을 통해 자신이 구축해온 편향성에서 벗어나 자신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 지지를 성찰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상식이나 사실에 기반한 추측이 사실이 아닐 수 있고, 진실을 향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그 지점에서 다시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 현상은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줄지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적 '태도'야말로 혼돈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 자신과 세상을 재발견하는 지평이 되어줄 것이다.

社說

막대한 군공항 이전 사업비 정부 지원 있어야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지역 이전이 예비 후보지 선정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가운데 막대한 사업비가 또 다른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가 새로운 공항을 전남에 건설해 주는 대신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여기서 생긴 개발 이익으로 이전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6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를 광주시가 순전히 중전 부지인 광주 군 공항을 개발해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는 중전 부지에 국제적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의 개발 로드맵을 연말 안에 내놓을 방침이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발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실제로 광주시의 사업 참여 요청에 한국토지주택과 광주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 참가 가능성과 선투입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

혔고,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 민간기업도 국내 테마파크는 수익성이 없다며 거절할 태세일 수 있다.

결국 중전 부지 개발로 사업비를 전액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 공항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정부가 나서 예비 후보지 선정과 함께 지금부터 막대한 사업비 조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마침 지난 4월 송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공항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이 확대돼 이전 작업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역 경제 살리기 지자체가 마중물 역할

광주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장기간 빠져 나오지 못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광주 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12.2%로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아 2011년 이후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광주 지역 자영업자는 2만 3313명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자조가 절로 나올 정도다.

그런가 하면 광주 지역 부도율은 0.99%로 전국 평균(0.13%)의 7배나 된다. 게다가 올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율은 0.42%로, 전국 평균 0.31%를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부도 사태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수출도 지난 9월 10억 5000만 달러에 그쳐 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산업단지 역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광주첨단 산업단지 가동률은 지난 6월 75.9%로, 2년 새 11.9% 감소

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2분기 연속 하락세다.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마·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큰 악재다. 문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국면을 타개하려면 광주시 등 지자체가 유관 기관과 함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정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현안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 확대도 절실하다. 30% 수준에 불과한 건설 현장의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지원 대책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비록 간혹 있는 처지이지만 사회에 남아 있는 돈을 익명으로 기부하겠습니다. 반드시 샴터를 계속 내 주십시오." 서울 '샴터' 분사로 어느 재소자가 보낸 장문의 편지 중 일부다. '샴터' 홈페이지에 실린 김성구 발행인의 글 '약속'에 등장하는 사연들을 읽는데 마음이 싸해졌다. 잡지 '샴터' 홈페이지에 6일 올라온 '2020년도 샴터는 계속 발행됩니다'라는 글은 바로 이들의 격려와 응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다. 발행인은 이를 '기적'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중순 '샴터'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12월호(통권 598호) 발행을 끝으로 무기한 휴간을 선언했다. 1970년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창간한 '샴터'는 '답배 한 갑보다 싸야 한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창간 당시 책값을 100원으로 책정했고, 지금도 3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국민 잡지'라 불릴 만한 '샴터'에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주옥같은 글들이 많았다. 특히 법정 스님과 수필가 피천득, 정채봉 동화작가, 이해인 수녀, 장영희 교수 등의 글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금도 발행부수가 2만 부에 그치지만 한 때 50만 부까지 발행했던 '샴터'는 직접 사 보거나 또는 은행 혹은 가게에서 누구나 한 번쯤 접해 봤을 잡지다. 나 역시 '샴터'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다. 어릴 적, 대학생이었던 삼촌 방에서 처음 접했던 게 삼촌당문고, 범우문고,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리고 샴터였다. 특히 최근 호 소설가가 34년간 연재했던 '가쪽'에 등장하는 다혜와 도단이는 오랜 기간 만나 보니 꼭 이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샴터 단행본 가운데서는 '노란 손수건'이 기억에 남는다. 또 100쇄 넘게 찍은 장영희 교수의 '살

아은 기적, 살아갈 기적'은 참 많이 선물했던 책이기도 하다. 인터넷 시대, 종이 잡지는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하지만 '샴터'를 살려 낸 건 결국 샴터로부터 위로받았던 독자들이었다. 후원금을 들고 찾아온 아들도 많았다. 진심을 담은 잡지가 독자의 사랑으로 휴간 선언 20여 일 만에 다시 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니,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건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